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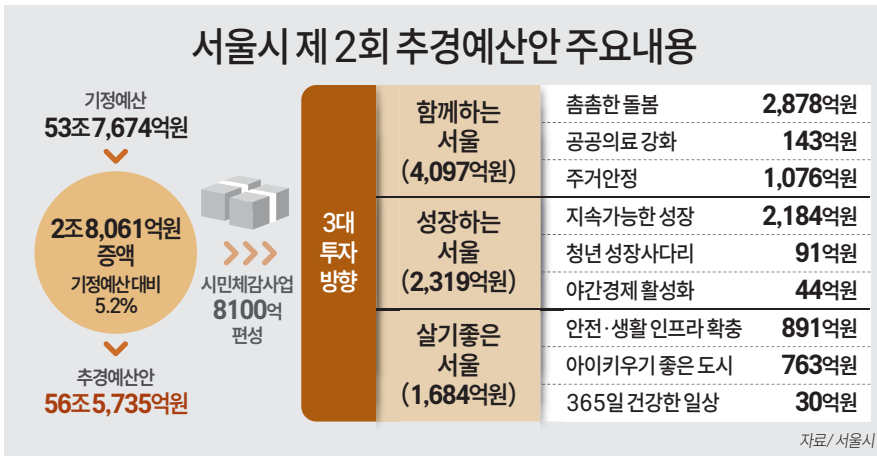
서울시 2.8조 2차 추경… 민생·미래·안전에 8100억 쏟아

교육청 등 법정무경비가 67%
시민 체감도 높은 분야 집중 투입
청년에게 생생형 AI 서비스 지원

서울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의 66.6%는 교육청·자치구 지원 등 법정무경비로 편성하고, 실제 재량으로 편성 가능한 8100억원으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서울시 예산은 기존 53조7674억원에서 56조573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1조8698억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교육청 지원 9179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주택진흥기금 적립 8863억원 등 법정무경비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실제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지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가용재원 81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경에서 청년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즉 '함께하는 서울' (복지·주거) 4097억원, '성장하는 서울' (미래성장) 2319억원, '살기 좋은 서울' (생활안전) 1684억원 등 3개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

우선 복지·주거 분야에는 4097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2221억원

을 투입해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31만6000명에서 32만8000명으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26만4000명에서 27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주거급여에는 440억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34만7000가구에서 36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 확대에도 130억원을 반영했다.

또 미래 성장 분야에는 2319억원을 편

성했다. 청년 AI 성장권 사업에 56억원을 투입해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코딩과 AI 에이전트 등 고급 생생형 AI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는 403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규모를 2만711대에서 2만6501대로 확대하고, 전기버스 급속충전기도 48기에서 89기로 늘린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확대를 위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도 각각 5억원과 17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생활안전 분야에는 1684억원을 편성했다. 빗물펌프장 신·증설에 72억원, 시흥계곡 빗물저류조 설치에 10억원을 투입하고, 지하철 6·7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에도 177억원을 반영했다.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대상도 기존 762곳에서 1457곳으로 확대한다.

결혼·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에는 41억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2만명에서 2만8000명으로 늘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예식장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도 기존 400건에서 55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강화 이용권 지원에 10억원, 서울체력9988 직영센터 확대에 6억원, 손목다터9988과 연계한 비만 고위험군 체육시설 이용 바우처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동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법정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연내 필수 재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제한된 가용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며 "생계·의료·주거 지원과 청년·신산업 투자, 결혼·출산·양육 및 안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학교 화장실 230곳 새단장

1조1711억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학교시설 개선에 6254억 투입
냉난방·급식실·CCTV 정비
3세 유아 3만5000명 무상교육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노후 화장실을 전면 개선하는 데 2142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1711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달 발표한 '서울교육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을 예산에 처음 반영한 것으로, 추경의 절반 이상을 학교 시설 개선에 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 등 서울 교육 비전의 3대 핵심지표를 2학기 학교 현장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청은 서울시 법정전입금과 정산분이 하반기에 전입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만큼, 추경 확정 후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많은 예산은 '기본은 탄탄하게' 분야에 편성됐다. 총 6254억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 화장실 개선에만 2142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설비와 조명, 환기시설 등을 전면 개선해 230개 학교의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 개선에도 3290억원을 투입한다. 냉난방 설비와 창호, 전기시설 등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내진보강과 드라이버트 외장재 교체도 함께 추진한다.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 현대화에는 56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가 발견한 소규모 위험요소를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208억원을 반영했고, 학교 출입문과 복

도, 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45억원도 편성했다.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심리 지원과 대응체계 강화에는 9억원을 반영했다.

3세 유아무상교육 지원에도 11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3만5000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포함한 '시작은 촘촘하게' 분야에는 총 191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디지털 전자철판 보급 등을 포함한 '성장은 다양하게' 분야에 총 336억원을 반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본교육을 튼튼히 하고 AI 미래교육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실시간 3D 카툰 렌더링 기술 개발

국제 학술지 IEEE Access 게재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김종현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3차원(3D) 공간을 실시간으로 카툰 스타일 영상으로 구현하면서 화면 흔들림을 줄이는 렌더링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실제 공간을 빠르게 3차원으로 복원하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3D Gaussian Splatting·3DGS)' 기술에 카툰 스타일 표현과 카메라 연출 기법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카툰 스타일을 적용할 경우 먼 배경에 불필요한 윤곽선이 생기거나 카메라 이동 시 화면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사진 기반 3D 복원 과정에서 생성되는 희소점군을 활용해 장면의 깊이 정보를 보완하는 '프록시 깊이' 기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주요 물체의 윤곽선은 유지하면서 배경 잡음과 프레임 간 깜빡임을 줄였다.

또 카메라 이동에 가속·감속과 관성 효과, 뱅킹, 줌 효과 등을 적용해 애니메이션



(왼쪽부터) 김종현 인하대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교수, 이연재 학생. /인하대

선과 같은 화면 전환을 구현했다.

실험에서는 기존 2차원 카툰 처리 방식보다 프레임 간 시각적 불일치를 줄였으며, 1280×720 해상도에서 평균 118FPS의 렌더링 성능을 기록해 실시간 콘텐츠 제작 가능성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이연재 학부생이 제1저자, 김종현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IEEE Access에 게재됐다.

/이현진 기자



지난 8일 박용선 포항시장을 비롯해 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희 국회의원,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해지역본부장, 서재원 경상북도의원,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과 의장단, 김성호 구룡포수협 조합장은 호미곶면 소재 피해 양식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포항 양식장 27곳서 넙치 등 27만마리 폐사

40억 투입해 피해 대응

포항지역 연안의 고수온으로 양식장 27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27만7000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포항시가 40억원을 투입해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지난 7일 기준 잠정 피해액은 약 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폐사 피해는

고수온에 취약한 강도다리에 집중됐다.

포항시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7개 사업에 총 40억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810톤과 순환펌프 1051대를 지원하고 있다. 면역증강제와 저충취수라인, 액화산소탱크, 비상발전기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도 확충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발전공기업 유치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에 '제2의 한전'으로 불리는 '통합 발전공기업' 분사 유치를 공식 건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조 개편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발전공기업의 분사를 전남광주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유치 근거로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4기가 광주군공항에 들어서고 태양광 등 첨단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점을 제시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는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등 국가 전력산업 핵심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부각했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고양시, 'UN AI 허브' 유치 추진단 출범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고양시가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시는 스마트시티과 내에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 지역 각계 인사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 조직 중심의 유치 활동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치 운동을 전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UN 글로벌 AI 허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추진되고 있다. AI 윤리와 국제 표준 마련, 전문가 양성과 공동

연구, 의료·교육·환경·기후·재난 분야의 글로벌 문제 해결 지원, AI 관련 정책 연구 등이 주요 역할이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산하 주요 기구와 세계은행(WB) 등 다자개발은행(MDB)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

정부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ILO 등 6개 유엔 기구와 협력의 형식(LOI)을 체결했으며, 5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열어 '모두를 위한 AI,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AI'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